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9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4월 27일 (음력 3월 12일) 금요일

## ‘정상회담 훈풍’ 광주·전남 남북교류협력 탄력

역사적인 4·27 남북 정상회담의 훈풍을 타고 광주·전남지역 남북교류협력사업에도 희망의 기운이 움트고 있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남북화해의 장이 됐던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대망의 3차 남북정상회담이 현실화되면서 광주·전남이 추진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도 기회개를 켜고 있다.

광주시는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기치 아래 체육·문화·민간지원 등 세 분야에

### 광주세계수영대회 북한선수단 참가 기대감

### 전남도 세계수목화비엔날레 북한 작가 초청

서 광주형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분야는 내년 7월12일 개막하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을 참가토록 하는 프로젝트

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선수단 참가 문제를 심도있게 접근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가동했던 채널을 복원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활발해지고 있는 법정부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면 성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는 세계수영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경우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체육분야 교류로는 또 광주시 양궁선수단과 북한팀의 공동 전지훈련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 광주시 또는 제3국에서 훈련하는 방안이다.

문화분야에서는 2018광주비엔날레 북한 참관단 파견과 올해 하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북한문화 특별전시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념색이 얽은 동양화나 도자기, 유물 등을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는 ‘DIVE INTO PEACE(평화의 물결속으로)’라는 대회 슬로건에 맞춰 오는 9월 수영대회 1000일을 기념하는 남북 문화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가을로 예정된 북한예술단의 서울 공연과 연계해 광주에서도 남북예술단이 함께 공연하는 방안이다.

민간지원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80억~90억원을 들여 북한에 200~

300가구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이나 학교, 병원 등 취약계층 공동생활시설을 지원하는 형태다.

광주시는 남북교류협력IT팀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광주시 남북교류협의회와 적극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적립해 온 44억원 규모의 남북교류기금을 활용키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지난 2007년의 북한 수해지역 주택복구 지원(1억7000만원), 2008~2010년 평양 배합사료 생산공장 사업비 지원(6억7400만원) 등을 추진했으며 이후로는 교류사업이 끊긴 상태다.

전남도는 오는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가바위 문화타운과 진도운림산방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 수목화비엔날레에 북한 작가와 작품을 초청할 예정이다.

한반도 남북 땅갈 전남과 북쪽 땅갈 함북 간 ‘땅갈협력’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통일정책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1차로 함북지역의 산모, 영·유아에게 전남의 미역, 이유식 재료 등을 제공하고 향후 산림·의료·농·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장기적으로 나진·신봉지구 등 두만강광역 개발 및 투자사업에 동참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말 기준 남북교류협력기금 34억원을 조성,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완도군 등 일선 지자체도 사랑의 김·미역 복원 보내기 운동과 수산양식 기술지원, 양식사범단지 조성 등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손도장으로 완성된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한반도기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북구청 광장에서 어린이들과 직원들이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한반도기 손도장 찍기를 하고 있다.

## 전남도, 도시재생뉴딜 사업비 400억 확보

전남도는 정부의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운데 도에서 자체 선정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 일반근린, 3개 유형 사업에 대해 국비 400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에 5550억 원을 배정해 광역시도에서 3개 유형에 70여 곳을 자율 선정해 추진토록 심의했다.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6월 말 국토교통부와 광역시도에 접수해 8월 말 중앙에서 30여 곳, 광역시도에서 70여 곳 등 전국에서 100여 곳을 선정하게 된다.

전남도는 올해 자율배정된 400여 원으로 4~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중앙공모사

업인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에 2~3곳이 선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는 27일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대해 시군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갖고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공모되도록 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다.

김정선 건설도시국장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중앙부처에 도의 실정을 설명하고, 실득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400여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며 “앞으로 중앙공모에서도 많은 곳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무례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만찬테이블에 독도 지도가 들어간 디지털을 올릴 계획인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NHK가 26일 보도했다.

청와대는 전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 만찬 자리에서 독도 지도를 올릴 예정이었다. 이 중에는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디지털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三)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전날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와 면담하면서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독도 유감이다”며 만찬에 디지털을 제공하지 말아 달라고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우리 외교부에 같은 내용의 항의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 등의 속재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뉴시스



독도 디지털 남북만찬서 배라



남의 진처에 감 놔라 배 놔라



독도 디지털 꼭 올려 주시라 요

김정은



값싸고 질 좋은 장흥한우